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어렵게 됐다.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연내 답방과 관련 진척 상황이 없으며 서두르거나 재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참목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연말도 절반이 지나간 만큼 경호·의전 등 물리적 시간도 부족해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답방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비핵화 부문에서 아직 북미 간기 싸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및 상응 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합의의 틀을 수 있었으나, 북미 간 신뢰의 접점을 찾기 위한 우리 측 중재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미국에 대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북미 고위급회담이 무산된 이후 북미 실무자 간 접촉 움직임은

연내 답방 무산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다

있으나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교착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필수다. 북한으로서도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에 올인해야 할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더라도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의 이워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둘째,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현재 새로운 합의의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물론 올해 이미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사항에 합의하고 그 합의 사항들은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 하지만 남북 정상간 만남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과 사업들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북핵 협상의 지연에 영향을 받고 있다. 남북이 새로운 합의를 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있다.

셋째, 준비 기간의 부족이다. 준비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어 있다. 국민 60~70%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한다지만 그렇지 않은 견해도 있으니,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에 대해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나 이용호 외무상 등 북한 고위층의 외부 출장도 변수로 작용할 듯하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답방은 어렵지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내년 초에 반드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사와 자신감을 거듭 내비치고 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김위원장의 답방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입장에서 내년도 신년사를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밝히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정상회담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G20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게 되면 자신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우리를 통해 미국의 의사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편 우리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대비하여 남북 관계의 토대를 닦는 일을 계

속해야 할 것이다. 철도 연결에 대비하여 착공식을 준비하는 것, 제 분야의 남북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같은 인도적 사안의 협의,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간 사회·문화 분야 교류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남북 정상회담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신년 초에 개최된다면 내년도 남북 관계의 훈풍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올 한 해 남북 관계는 무수한 도전과 기회 속에서 비교적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정상 간 신뢰의 기반이 쌓이고 이러한 신뢰의 바탕 아래 남북 간 합의 사항이 지켜지고 있다. 남북 대화에서 비핵화 합의까지 이뤄낸 것도 이러한 신뢰에 기반한 것임은 자명하다.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과거처럼 주저하거나 기 싸움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면 더 이상 이러한 기회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내년 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여 이러한 기회가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종교칼럼



황성호  
영남 신복성당 주임신부

‘갑질’이나 ‘적폐’ 현상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우리가 산업 사회로 오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계나 조직이 인간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인간이 주체로부터 소외되고 객체인 기계나 조직, 그리고 물질이 중심이 되는 현상을 ‘인간 소외 현상’이라 한다. 그래서 인간 소외는 산업 사회에서 본격화된 사회적 병폐이다.

‘인간 소외’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박탈당해 비인간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인간화는 사회적 제도나 정치·경제 체제 등 문명의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존재가 하나의 수단이나 이용가치로 전락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본질은 점점 설 곳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간 소외’ 만연한 시대, 종교의 역할은?

이미 ‘사회 계약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을 사회정치적으로 저술한 장 자크 루소에 의하여 지적되었고, 그의 저서 ‘사회 계약론’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곳곳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시작하며 사회적 병폐를 고발하였다. 또한 칼 마르크스는 그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즉 인간 소외 현상은 오늘날 산업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병리 현상인 것이다.

인간 소외는 존중 받아야 하는 인간 존재 자체를 무시한 현대 사회의 큰 문제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 안에서, 또 우리들에 의해서 원인이 되고 발생하는 것일까? 그 답은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습성이나 지녔던 생각을 반성하면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 소외 현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외적으로 계급화와 차별화하려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상하 관계를 고수하려는 계급화와 우리가 서로 틀리다는 차별화는 서로가 공존해 살아가는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인간 관계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시대는 계급화의 골이 깊어져 있는데, 최근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갑질’이 그 좋은 예이

다. 그리고 차별화는 서로를 분리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와 함께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을 배제시켜 버리는 불평등의 병폐적인 현상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어떤 기업이나 조직의 대표를 한다거나, 재물을 많이 가졌다거나, 학식이 높았다거나,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산다거나, 비싼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라면, 이미 그 삶에서 계급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의식의 삶을 사는 이는 타자를 우월과 열등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로가 틀리다는 차별화 의식은 권위라는 가면을 통해 분리시키려고 폭력을 생산한다. 그래서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 우리 사회의 병폐(또는 적폐)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현상은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짓밟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 우리 시대의 종교의 역할은 인간 소외 현상을 발생시키는 계급화와 차별화라는 특권 의식을 분별하여 그 병폐를 고발하는 것이다. 예수가 당시 시대의 인

간 소외 현상을 고발하고 하느님 나라의 정의를 외쳤던 것처럼 말이다. 예수는 사랑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사랑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왜냐하면 사랑을 위한은 아버지 하느님, 곧 신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 희망을 두고, 그분처럼 사랑하며, 그분처럼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역할은 산업 문명의 폭력성과 시장 자본주의의 노예화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필요하다. 인간 소외 현상을 만들어내는 계급화와 차별화하려는 시대의 병폐적 사조에 종교의 식별과 고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너 자신의 인격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윤리 형이상학의 정초’ IV-429) 임마누엘 칸트의 말은 우리 삶과 마음에 계급화와 차별화가 왜 발생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인간 존재 자체는 목적 자체가 아니라 수단화(이용 가치)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적 칸트의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 주체들에게 격려를

에 광주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체결되고 그에 근거해 빛그린 산단에 건립될 신규 합작 법인에 투자하려는 현대차가 무엇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가 우리나라 산업과 노동의 질서를 크게 바꾸었다고 평가했을 거다.

돌아보면 역부족이었다. 의미 전달과 소통 방식부터 낮설었다.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상상 모델에 대해 현재의 갈등 구조 속에 처해 있는 노사는 글자 하나하나마다 의혹을 품었다. 두 대립되는 세계의 언어를 융합시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내기는커녕, ‘노’도 ‘사’도 잘 몰랐던 광주시 공무원들은 각 축의 언어와 문법, 니우스와 멘탈리티의 차이에 매번 허를 내두르며 새롭게 적응해야 했다.

앞으로 적적 나아가기는커녕 돌 사이에서 사실상 진자 운동을 했다. 그들에게 현대차는 지독했고, 노동계는 완고했다. 각축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뒤늦게 결합한 전문가들은 또 다른 해설자가 필요했다. 그러나 꾸역꾸역 결승점까지 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최종전 테이프 바로 앞, 그들은 여지없이 미끄러지고 말았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로서 솔직히 아쉽고 안타깝기 그지 없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 언론을 뒤져보면 그 어느 매체도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 참여한 주체들이 지금껏 이루어온 성과가 무엇인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친절하고 차분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운동 진영 논리와 끝이 안 좋은 것에 대한 비난 뿐이다. 노동계에 책임을 돌리는 맹목적인 모두가 우리 사회의 현재 수준이다.

하나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일단 협상 주체들에게 기운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마치 월드컵 16강 진출에 실패한 국가대표 축구팀과 같은 자괴감에 처해 있을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당신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같이 와 준 것만으로도 정말 장하다’는 격려의 말 한마디다.

설득이 부족했고,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과정 관리에 어눌했고, 결론의 의미 전달에 실패했다. 그러나 분명 그들은 설득하기 위해 무지 애썼고, 이해해 주려고도 애썼다. 과정과 절차의 쇄신도 도모해 보았고, 결론의 의미도 재구성해 보려고 무진장 노력했다. 왜 결과에만 집착하는가.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기반 사회 통합형 일자리 모델로 알려져 있다. 민관 합

작이면서 정부의 복지 제공으로 가져본 소득의 증대를 함께 도모한다. 지역노사 민정협의회가 일자리 거버넌스에 상당한 역할을 부여받고 기업 노사협의회도 노사상생협의회로 개칭하여, 지역과 기업 모두에서 상생을 향한 소통의 노력을 극대화한다.

낯선 컨셉, 존재하지 않는 질서다. 지금의 협상 주체들이 아무런 오해와 시행착오 없이 적적 감당할 수 있는 손쉬운 프로젝트였다면 그만쯤 무게와 가치에서 떨어지는 걸 거다.

겪어 보지 못한 낯선 모델이 주는 공포 속에서 모두 물다리를 열심히 두드렸고, 결국 이번엔 다리를 건너지 않기로 했다. 잘 판단했다. 대신 돌아서지는 말자. 한번 더 두드려보고 들어가 보고 쟁겨보며 양극화 극복으로 이어지는 교각 횡단의 역사적 시도를 재차 해야 한다. 이 고통과 의심의 강은 건널 수 있고 또 건너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 안에 우리의 경제, 우리의 일자리 모델과 노사 관계 모델, 나아가 사회 재생산의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결코 없다. 협상 주체들이 다시 의기투합해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 이 나라 미래 세대들에게 당신들이 가장 큰 희망이다.

社說

‘호남 관광객 5000만 명 시대’ 알맹이가 없다

호남을 찾는 관광객 수가 올해도 연간 5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 반가운 소식이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평창 동계 올림픽과 폭염 등의 영향으로 호남을 찾는 관광객 수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으나 하반기 들어 수목비엔날레와 다양한 향토 축제에 힘입어 반전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광객 5000만 명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남이 2년 연속 관광객 5000만 명 시대를 열게 됐다라는 점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지난해 1508만 명의 관광객을 맞은 여수가 경기도 용인을 제치고 전국 1위 관광도시로 등극했다는 것은 달리진 호남 관광의 위상을 말해 준다. 그럼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5000만 명 가운데 순수한 외지 관광객은 13.6%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 호남 지역민들이 자기들끼리 관내를 돌아다녔음을 의미한다. 관광객들의 지역 편중도 심각한 수준인데 전체 관광객의 절반가량이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 몰렸다. 목포 등지의 전남 서부권은 다양한 문화 자원이 있음에도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외국인들로부터는 더 심한 소외를 받았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1333만 명 가운데 고작 2.2%만이 호남을 찾았다. 관광객 5000만 명 시대를 열었다지만 속빈 강정과 같은 내실 없는 관광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숙박 여행 비중도 광주가 2.1%, 전남이 8.8%로 타 지역에 비해 낮았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멀어 숙박 여행객이 많을 법하지만 불편한 숙박 및 편의 시설 때문에 당일 관광객들만 북적였다는 얘기다.

내실 없는 호남 관광은 사실 저예산의 일은 아니다. 이례라도 호남 관광 5000만 명 시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편의 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와 함께 확실한 ‘킬러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 문화 자산을 활용한 길러 콘텐츠를 만들어야 머무는 관광을 유도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현지 주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관광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인이 따라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이후 탄생한 노래다. 1982년에 만들어진 음악극 ‘넋풀이 곳’에 수록된 7곡 중 대미를 장식한 곡인데, 5·18 당시 대변인을 지낸 윤상원과 ‘들불야학’ 윤기순의 영혼 결합식으로 바쳐진 노래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노래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민주화 열망을 바라는 많은 이들에 의해 널리 애창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을 벗어나 민주화를 바라는 3세계 민중들도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동안 온갖 수난을 겪은 노래이기도 하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당시엔 광주 망월동 5·18 기념식장에서 제창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노래 제목의 ‘임’을 둘러싸고도 어이없는 이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연을 지닌 ‘임을 위한 행진곡’이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에 관현악곡으로 제작돼 광주에서

초연됐으며 또 해외에서도 연주됐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관현악곡 ‘임을 위한 행진곡’은 색다른 맛을 제공한다.

최근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 세계화’ 사업비가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9억 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뮤지컬로 제작하고 2020년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내외 순회공연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동남아 국가에서 제각각 불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표준화에도 나선다.

앞으로 뮤지컬 ‘임을 위한 행진곡’이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관현악곡 역시 세계 곳곳에서 연주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은 세계 속에서 민주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라이벌’은 같은 분야에서 같은 목적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사람을 말한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두 명의 신(神)’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한 시즌 리그에서 40~50골, 국가 대표 경기 포함 한 해 92골을 넣을 만큼 탁월한 골 결정력을 자랑한다. 이들은 최고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 상을 2008년 이후 10년간 다섯 차례씩 나눠 가지며 세계 축구를 양분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이들의 라이벌 대결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호날두가 이탈리아 유

라이벌의 미학

라시코 신들의 전쟁은 끝났다. 둘의 대결은 챔스전만 남았는데 다행히 어제 조별 리그에서 소속 팀이 16강에 나란히 진출해 맞대결의 기대를 높여 주고 있다.

메시와 호날두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결코 질 수가 없는 라이벌이지만 그에게 골을 넣을 만큼 탁월한 골 결정력을 자랑한다. 이들은 최고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 상을 2008년 이후 10년간 다섯 차례씩 나눠 가지며 세계 축구를 양분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이들의 라이벌 대결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호날두가 이탈리아 유

이벌이 있었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야구의 선동열과 최동원, 피겨의 김연아와 마오, 복싱의 알리과 포먼, 골프의 우즈와 미켈슨 등. 라이벌은 서로를 의식하며 강한 승부욕으로 치열하게 싸운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대가 있었기에 자신이 발전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주위를 돌아보자. 자신의 삶에 진정한 라이벌이 있다면 그건 운명이자 축복일 것이다.

/유재만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당)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에ditorial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신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